

★ 중앙교회 구역 모임(16-10)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 삶 나누기

마른 막대기 교회와 마른 막대기 목사

미국 펜실바니아주에는 아주 유명한 명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가는 교회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몸은 깡마르고 성질이 사납고 은혜가 전혀 없는 목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명물은 그 도시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하도 싸움만 하고 은혜는 하나도 없으므로 오는 목사마다 자주 쫓아내므로 6개월을 버틴 목사님이 없을 정도여서 이 교회의 별명도 ‘마른 막대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노회장을 찾아와서 갈 만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노회장이 신경질을 부리며 ‘아니, 이 사람아 자네 갈 교회가 어디 있나?’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마른 막대기 교회’의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한 분을 안 계실까요?’라고 합니다. 그 때에 노회장이 생각하기를 같은 날 이렇게 서로 소개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서로 땀 주면서 먼저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가는 목사님이 마지막이니까 잘 모시지 못하면 그 교회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받았고 또 목사님도 따로 불러서 ‘이번에 가서 쫓기어 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니 목사직을 떠나시오.’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과연,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부임했으니 궁합이 잘 맞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첫 설교를 하고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말이나 성질의 실수가 나타나서 은혜가 없다고 쫓겨날까 봐 아예 산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이면 내려와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를 계속합니다. 또한 교회도 이번 목사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조심하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노회장님이 그 교회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가니 굉장한 소리가 납니다. 노회장은 ‘아이쿠, 또 싸움이 났구나. 제 버릇 개 주랴.’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물으니 ‘목사님,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부임하여 둘 다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라고 하더랍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펜실바니아주의 가장 은혜로운 교회요, 가장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알려졌습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본문 / 사도행전 2:1-4, 암송 / 신명기 28:1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53문 “당신은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나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나눔1. 오순절 성령강림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일만입니까?(행2:1)

나눔2.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했습니까?(행2:2-3)

나눔3. 오순절에 예수님의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행2:4)

나눔4.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요14:16-17,26, 16:7-8,13)

3. 은혜나누기

1)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해봅시다.

2)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3) 중보기도

(1) 나라가 공의롭게 바로 서게 하시고, 북한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게 하소서.

(2) 3월 생명운동캠페인 “우리 함께 걸어요!”에 많은 참여가 있게 하소서.

(3) 3월 개강하는 전도 & 양육 프로그램들과 함께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소서.

(4)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네팔 문금임 선교사

네팔코리아국제대학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좋은 대학이 되도록

훈련원 본부와 아멘교회의 건물이 지어 지도록

함께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핫라인 010-2221-3346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16-3~4월 “우리 함께 걸어요”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